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노후화된 건물이나 빈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금남로 1가에 자리한 전일빌딩(맨 왼쪽 흰색 건물) 뒤로 문화전당이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26·끝〉 연재를 마치며

글·사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亞문화수도 꿈꾸는 광주... 문화생태계 조성이 답이다

서울에 강남과 강북이 있다면 파리에겐 강동과 강서가 있다. 파리의 서쪽지역이 전통적인 부촌인데 반해 동쪽은 오랫동안 발전이 더딘 변방이었다. 이 가운데 파리의 동쪽 13지구에 자리한 리브고슈(Rive Gauche)는 가장 척박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우리 말로 왼쪽 기슭(左岸)이란 뜻의 리브고슈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폐쇄된 창고와 폐철로, 폐쇄되기 직전의 소규모 공장들이 어지럽게 늘어난 공업지역이었다. 그렇다 보니 지역간 불균형과 사회적 균열이 퍼지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적지 않았다. 당시 파리시장이었던 자크 시라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1년 도시재생차원에서 이 지역을 새롭게 개조하는 '리브고슈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실 리브고슈는 파리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데다 외곽순환도로와 잘 연결돼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다. 특히 세느강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철로변의 방치된 산업시설들은 개발 여부에 따라 활용 가치가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방대한 규모의 폐선부지는 리브고슈의 '고림'을 가져온 주범이었다. 세느강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지만 철로부지에 가로 막혀 세느강으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리브고슈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출발은 기존의 철로부지 위에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도입이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이 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개념인 '24-7 도시'(24시간 7일 내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다. 즉, 문화·교육·업무·주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일빌딩 등 亞문화전당 주변 역사 공간

문화·교육·스토리텔링 역은 재생 필요

부산 '감천마을'부터 프랑스 '리브고슈'까지

문화적 재생 가치 일깨운 '교과서' 참고를



파리의 리브고슈에 자리한 미테랑 도서관 전경.



옛 제분소를 리모델링한 파리 7대학 캠퍼스.

그래서일까, 지난여름 기자가 직접 둘러본 리브고슈는 도심의 상층 리제 거리나 오페라 극장 인근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철도부지 위에 친환경 건축과 모던한 감각으로 건립된 업무·교육·주거·문화·상업시설은 '신도시 파리'를 보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브고슈의 재개발 면적은 파리의 도시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130만 ha. 이 중 폐선부지는 26ha. 녹지공간은 9만 6000㎡, 주거공간은 43만㎡, 사무공간은 70만㎡, 상업지역은 40만㎡에 이른다. 전체 부지 중 35%가 업무·상업지역,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각각 30%·10%, 도로 및 녹지가 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30만㎡는 인공지반(데크)으로 조성됐다.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 시몬느 드 보바르 다리, 파리 제7대학 등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리브고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책을 반쯤 펼쳐 놓은 듯한 20층 높이의 건물 4동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1996년 개관한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아이콘인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미테랑 도서관)이다. 지난 91년 9월 착공된 도서관은 라 데팡스와 루브르 박물관의 파리미드, 바스티유 오페라 등과 함께 미테랑 대통령이 14년간의 재임중 추진한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ct·대역사)의 산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파리의 알렉산드리아(기원전 3세기 세계 최초의 도서관)'를 짓겠다는 당시 미테랑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맡았다.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4개 유리건물의 명칭은 각각 시간, 법률, 문자, 숫자.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상징하는 표상이자 문화대국 파리의 자부심이다.

미테랑 도서관에서 세느강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나무로 지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가 보인다. 2006년 완성된 이 다리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학자인 시몬느 드 보바르의 이름을 따다. 21세기를 내다본 20세기 여성학자와 22세기를 지향하는 21세기 재개발 지역인 리브고슈의 미래를 담은 것이다. 다리의 길이는 304m, 폭은 12m로 세느강 사이에 두고 있는 12지구의 베르시와 리브고슈의 툴비악 지역을 잇는 세느강의 37번째 다리다. 나무 재질이 주는 편안함과 날렵한 곡선미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데다 2층 구조로 설계된 1층 다리 밑은 의자가 비치돼 있어 시민들의 피크닉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미테랑 도서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파리 7 대학 캠퍼스는 19세기의 제분소를 되살려 낸 곳이다. 과거 제분소였던 그랑 물랭(Grands Moulins·큰 방앗간)과 알로 파린(밀가루 보관창고)이 리모델링을 거쳐 대학 건물로 변신했다. 파리 제7대학은 지난 70년 소르본

대학으로부터 분리된 17개 대학 중 하나로 파리에 있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인문학, 자연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과가 개설돼 있는 것이 특징. '그랑 물랭'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1921년 건설됐다. 1996년 풍차에서 이뤄지던 제분소의 기능이 파리 북쪽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폐쇄됐고, 1999년 말 7 대학 캠퍼스로 전환이 결정된 뒤 2004~2006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알로파린은 1950년에 건설돼 그랑 물랭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랑 물랭과 같은 시기에 리모델링을 했다. 이 두 건물이 공식적으로 파리 7 대학 건물로서 재개장한 것은 2007년 2월7일이다.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문화와 교육을 메인 테마로 내건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내년 9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개관으로 본격적으로 오르는 아시아 문화중심 조성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테랑 도서관을 기점으로 주변의 낡은 공장과 건물들을 하나씩 새롭게 되살려 내후년 리브고슈를 프랑스의 '문화특구'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리브고슈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킨 미테랑 도서관은 컨셉이나 규모, 기능면 등에서 문화전당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미테랑 도서관이 파리 시민들의 긍지가 되기까지에는 주변의 빈 건물과 공간을 문화와 교육, 작가들의 아틀리에로 활용한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공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이 거대한 '섬'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려면 인근의 전일빌딩을 비롯해 동구의 빈 건물들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문화전당 발(發) 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지난 4월28일 부산 감천마을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의 대장정을 이어온 본 시리즈의 기획의도는 이러한 문화적 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는 것이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전통적인 도시개발 대신 지역의 역사와 흔적을 간직한 공간에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엮은 재생은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이 광주의 장밋빛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문화생태계 조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